주·야간보호센터 061)394-0123
신세계요양원
061-395-2580 장성읍 방울샘길 12 (장성읍 영천리 1493-5)

호남신문

호남신문 자매지 국민복지신문 2010년 8월 30일 창간

(대표전화) 062-229-6000 1946년 10월 26일 창간 i-honam.com 제 3568호 (음력 6월 22일) 2023년 8월 8일 화요일

"목숨을 걸어 지키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다"

전국 15개 공항 '폭탄테러' 허위 게시글에 보안 강화…엄중처벌

한국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 순찰 강화
인천공항, 대테러기동대 등 경계주의 상향
게시자, IP추적 회피용 우회 프로그램 사용

국내 공항이 폭탄테러와 흉기난동에 대한 온라인 게시글에 대비해 항공보안을 강화했다.

이번 강화는 인천공항과 김해, 대구, 제주공항 등에서 승객들을 대상으로 폭탄테러와 흉기난동을 부리겠다는 글이 온라인에 게시 되면서 공항당국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현재까지 테러 의심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7일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김포, 제주, 김해, 인천 등 전국 15개 공항의 보안 경비를 강화한다.

앞서 지난 4일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과 김포, 제주, 대구, 김해공항에서 폭탄을 설치해 승객들에게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는 글이 온라인에 게시 되면서 경찰이 게시자 검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4시28분께 인천공항에 폭탄을 설치했고, 해당 폭탄은 같은날 오후 8시에 터진다며 해당 폭탄이 터지면 공항을 빠져나오는 승객들을 트럭으로 치고,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글이 온라인에 게시됐다.

또한 전날에는 김해와, 김포, 대구, 제주공항에 폭탄테러를 감행하겠다는 글도 올라왔다.

이에 따라 각 지역 경찰은 해당 공항에 경찰특공대와 대테러기동대, 폭발물처리반(EOD)을 출동시켜 항공보안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는 김포, 김해, 제주, 김해 등 전국 14개 공항에 경계를 강화하고 공항 순찰주기를 평시 90분에서 60분으로 강화했다.

또한 외곽초소 및 상주통로의 검색을 강화했다. 또한 여객 청사 전면도로 및 지하철 연결통로 등 취약 구역 상황실을 중점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인천공항공사도 인천공항경찰단과 가용인원을 총동원해 수색을 강화하고 대테러기동대와 폭발물처리반(EOD)까지 총력 대응하고 있다. 또한 해당 글을 올린 게시자를 추적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의 경계주의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순찰주기를 90분에서 60분으로 강화한다.

또한 상주직원 및 외곽초소 출입인원의 보안점검을 강화하고 CCTV 사각지역을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게시자가 인터넷 프로토콜(IP)를 추적을 피하기 위해 우회 프로그램을 사용해 게시글을 올려놨다"며 "합동 수사를 통해 게시자를 검거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같은 악성 게시자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기동취재본부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광주역 광주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5.2도를 기록한 7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역 주변 일대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민주 의원들, '돈봉투' 5명 추가 실명 공개에 "사실이라면 사퇴" "정치테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의원 명단이 7일 언론에 추가로 공개된 것과 관련해 실명이 거론된 의원들은 일제히 의혹을 부인했다.

문화일보는 이날 김회재·김승남·김윤덕·이용빈 민주당 의원과 김남국 무소속 의원 등 5명이 최근 윤관석 무소속 의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언급한 현역 의원 19명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조선일보가 지난 5일 윤 의원으로부터 국회 본청 외교통일위원장실에서 돈봉투를 받은 정황이 있는 현역 의원이라며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박영순·백혜련·이성만·임종성·전용기·허종식·황운하 의원 등 10명 실명을 보도한 데 이어 추가로 공개된 명단이다.

검찰은 이번 의혹에 연루된 19명 중 10명은 2021년 4월 28일 외통위원장실, 나머지 9명은 다음날 국회 의원회관 등에서 윤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실명이 추가 공개된 의원 5명은 의원회관에서 돈봉투를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9명 중 일부라고 문화일보는 보도했다.

실명이 언급된 의원들은 보도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윤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돈봉투를 받은 적이 결단코 없다. 더욱이 당시 전당대회에서 다른 후보를 지지하고 있었다"고 부인했다.

김승남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저는 2021년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어떠한 금품도 제공받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김회재 의원은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책임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적극 부인했다.

이용빈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그야말로 카더라식 내용을 사실확인도 없이 기사화한 정치적 테러행위"라며 "검찰이 판명되지도 않은 내용에 대해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범죄자로 몰아가는데 혈안이 돼있다"고 비판했다.

변용일 기자

광주서 코로나 증가 속 호흡기바이러스도 유행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잇따라

코로나19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 들어 호흡기바이러스도 유행하고 있어 여름철 개인위생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7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여름감기'로 알려진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검출률이 7월 3주차 29.2%(82건 중 24건)에 이어 4주차 24.6%(77건 중 19건) 등 2주 연속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파라인플루엔자는 일반적으로 4~8월에 유행하나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엔 자취를 감췄다가 2021년 9월 때늦은 재유행이 확인됐다. 지난해에도 10월부터 검출되는 등 기존 발생 양상과 다른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본격적인 여름철인 7월에 크게 유행하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하지만 인플루엔자의 이례적인 여름철 유행 등이 코로나19 유행으로 다양한 호흡기바이러스의 유행 경향이 변화하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와 주의가 요구된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이슬비 기자

수요일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